

기관(학교)-3

학업중단 예방 사례 응모분야

■ 학교 □ 지역사회 교육기관

사례명	OO, 나빌레라 -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어라'					
응모자	시·도명	OOO	기관명	OO중학교	성명	OOO

1. 프로그램 운영 배경

- OO시 북구에 위치한 OO중학교는 바다를 바라보며 등하교를 하는, OO 끝자락에 위치한 학교입니다. 교통이 열악한 위치 특성상 초등, 중등, 고등학교가 단일교로 운영되어 다수의 학생들이 학창시절 12년 동안을 익숙한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어 그 원인으로 학교 부적응을 경험하는 학생들에게는 이런 분위기가 좋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신도시화 되면서 이 지역에 아파트가 우후죽순 생기며 학생들의 수가 갑자기 늘어나 학교는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증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해 학교 교육환경에도 많은 제약이 생겨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이 학교 적응을 도모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학생들에게 진로 체험의 기회, 대인관계 개선의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학교 내 대안교실'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반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교내 위(Wee)클래스를 섭터로 여기며 방문하는 빈도가 잦은 것을 감안하여 위(Wee)클래스에서 프로그램을 담당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프로그램 운영 사례

□ 프로그램 명: 5월 학교 내 대안교실 「OO, 나빌레라」 - 에코편

가.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 목표

- 체험활동을 통해 학교 부적응 요인을 해소하여 학교 적응력 향상
- 잠재된 특기와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친구의 소중함을 알고, 자아존중감을 회복하며 친구에 대한 이해 증진

- 참여학생 수: 정규 대안교실 참여 학생 8명, 개별 신청 학생 4,5명

- 운영 기간: 2024. 5. 21.(화), 2024. 5. 24.(금)

- 운영 인력과 역할 분담: 전문상담교사, 학업중단담당교사가 협력하여 학생 모집 후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프로그램 실시

－ 예산 집행액(필히 작성)

항 목	산출내역	총 계
체험비 (커피박 공예)	30,000원 × 12명 × 1회	360,000원
체험비 (제로 웨이스트)	35,000원 × 13명 × 1회	455,000원
합 계		815,000원

나. 프로그램 세부 내용

－ 프로그램 준비

구 분	내 용
학생선정 방법	① 정규 대안교실 참여 학생: 위(Wee)클래스 상담 시 학교 부적응을 호소하는 학생 우선 선정 ② 개별 참여 학생: 프로그램 선정 후 정규 참여 학생 외 관심을 보이는 학생 선정
프로그램 선정 방법	1학기 상담주간 운영시 ‘내가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함. 5월의 대안교실은 ‘에코편’으로 테마를 정하여 환경과 관련있는 프로그램 (커피박공예, 제로웨이스트 공예)을 선정함.
장소선정 방법	위(Wee)클래스 집단상담실을 기본으로,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진로진학실, 기술가정실 등을 추가로 섭외하여 진행함.

－ 프로그램 진행

구 분	내 용
개인상담 실시	정규 대안교실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친구관계, 학업 성취 등 개별적 학교 부적응 요소에 대해 파악하고 어려운 점에 대해 나눔.
프로그램 체험	① 커피박 공예: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활용해 만든 커피 점토로 여러 소품(화분, 키링)을 만드는 활동. ② 제로웨이스트 체험: 고체치약, 고체샴푸를 직접 만들어 플라스틱 사용의 폐해에 대해 생각해보는 활동.

－ 프로그램 마무리

구 분	내 용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체험을 마친 후 만족도조사 실시를 통해 학생들의 프로그램 만족도, 강사 만족도, 장소 및 시간 만족도 여러 부분을 점검하여 다음 프로그램 선정에 반영함.

다. 본 프로그램을 위해 연계한 학교, 다른 지역사회 기관(있는 경우 제시)

학교(기관)명	연계 내용	사이트 또는 전화번호
무지개정원	커피박공예, 고체치약, 고체샴푸 만들기 체험	010-2519-0000

□ 프로그램 명: 상시 학교 내 대안교실 「강동, 나빌레라」 - 적응편

가.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 목표

- 학교 부적응 학생의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상담 기회 제공
- 잠재된 특기와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자아존중감을 회복하며 친구에 대한 이해 증진

- 참여학생 수: 점심시간 위(Wee)클래스 방문 학생 5명

- 운영 기간: 2024. 5. ~ 2024. 12.

- 운영 인력과 역할 분담: 전문상담교사가 상담시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발굴하여 개인상담 및 위(Wee)카페, 위(Wee)클래스 쉼터를 운영하며 지속적 상담과 진로 탐색 활동 실시

- 예산 집행액(필히 작성)

항 목	산출내역	총 계
위(Wee)카페 운영	20,000원 × 5명 × 2회	200,000원
나의 진로찾기 프로젝트 운영	35,000원 × 2명	70,000원
합 계		270,000원

나. 프로그램 세부 내용

- 프로그램 준비

구 분	내 용
학생선정 방법	정규 대안교실 참여 학생 중 3명과 친구 2명 학생을 선정
프로그램 선정 방법	친구관계에 어려움을 겪어 점심시간에 급식실을 가는 것을 주저한다는 상담 내용을 토대로 점심시간 위(Wee)카페 및 쉼터를 만들어 학생들이 간단한 식사와 친구들과의 대화를 나누며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함.
장소선정 방법	위(Wee)클래스 개인상담실에서 진행함.

－ 프로그램 진행

구 분	내 용
개인상담 실시	위(Wee)카페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친구관계, 학업 성취 등 개별적 학교 부적응 요소에 대해 파악하고 어려운 점에 대해 나눔.
프로그램 체험	① 위(Wee)카페: 3명 이내의 학생을 선정, 점심시간에 티타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친구관계 개선을 도모함. ② 위(Wee)클래스 쉼터: 점심시간에 혼자 돌아다니는 학생들이 눈치보지 않고 쉬어갈 수 있도록 쉼터를 제공함.

－ 프로그램 마무리

구 분	내 용
만족도 조사	1년 단위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실시하고 있음. 1월 말, 학기 종료시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만족도를 알아보고 다음 프로그램에 반영할 예정임.

3. 프로그램 운영 성과, 어려웠던 점과 극복 방법

－ 학교 내 대안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과연 학업중단 위기 학생이 학교에서 적응을 할 수 있게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물음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학생들을 지켜보면 언제나 생각지도 못한 지점에서 학교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거 만들러 한번 더 가 봐야지’ ‘오늘 점심시간에는 이걸 먹어봐야지’ 라는 작은 생각 하나가 학교로 발걸음을 향하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2024년 학교 내 대안교실 프로그램은 아직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교생활도 현재 진행중입니다. 프로그램의 성과를 객관적인 지표로 이야기하기에는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표정, 어조 등을 본다면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내 대안교실 프로그램은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중간 지점에서 중재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중재를 잘 하고 있는지 항상 돌아보게 됩니다. 프로그램의 목표-학교로의 복귀-를 지향하는 것은 명확하지만 학생들은 결국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향으로 행선지를 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학교 내 대안교실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런 활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학교 내 대안교실은 친구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학업중단 위기 학생이 되는 학생에게는 돌파구가 되지만, 학교 자체를 거부하고 학교에서 하는 모든 것이 싫은 학생들에게는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학교 내 대안교실이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가장 어렵다는 점이 고민되고 또한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앞으로 ‘학교 내 대

안교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또한 고민되는 지점은 '새로운', '해보지 않은'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일이었습니다. 요즘 학교 현장에서는 대안교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명목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명목은 조금씩 다르지만 체험처가 겹치니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혼란이 옵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상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식상하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대안교실에 대한 흥미를 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것, 아직 안 해본 것을 유지하는 것이 생각보다 더 힘이 듭니다. 이런 고충들도 한번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